광주 에이스페어, 메타버스 미래모습 제시했다

AI·VR·X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체험 다채
유튜브·라이브 커머스 생중계…온·오프라인서 인기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정종태)는 지난 9일 개막한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 '2021 광주 ACE Fair'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폐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VR, 방송,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340여 개의 다양한 콘텐츠 업체가 참여해 440여 개 전시 부스에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기술과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이색 공간 '메타십(Meta Ship)'을 전시장 초입에 마련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거대한 지구본 아래 서로 연결되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우주선 분위기의 부스를 설치한 메타십에는 ▲페이스북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 ▲로로젬 ▲이닷 ▲스노우닥 ▲룩시드랩스가 상주해 저마다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메타십에서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개성 있는 아바타로 소통하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부터 메타버스 기반 미래형 업무 공간 워크룸, 패션·뷰티 액세서리 가상 피팅, 바이오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등을 VR 헤드셋 등을 착용한 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의 탄생 스토리와 함께, 가수 E.SO의 라이브 공연이 전 세계 메타버스로 동시 송출되는 등 메타버스의 상용화가 피부로 와 닿는 경험까지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스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상품을 증정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각 기관 지원으로 개발된 여러 콘텐츠의 신제품도 한 곳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페어에서는 '2021 광주 국제 ACE 일러스트레이션 페어'가 동시 개최돼 로사, 미아캣, 블루샤크, 소녀의 시간, 퍼엉 등 개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하거나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벤트존에는 상설 무대가 마련돼 TBS 추석 특집 방송, 라이브 드로잉쇼,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K-콘텐츠 수출과 투자 지원을 위해 국내 250개 업체, 국내외 바이어 170개 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수출 상담회가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콘텐츠 개발 컨퍼런스(CDC) 등 비즈니스 행사와 세미나도 동시 진행됐다.

자녀와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는 주부 이승연(37)씨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 아이들과 함께 여행 온 기분으로 전시장을 관람했다"며 "특히 아이들이 손 소독제를 들고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VR기기를 착용하고 가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체험 등을 즐기며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아 데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1 에이스페어는 유튜브 채널 '에이스페어'와 네이버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로도 생중계됐다. /오지현 기자

신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에 보증비율 등 우대 자금조달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층을 새로 고용했거나 앞으로 6개월 안에 고용 예정인 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와 보증료율 0.7% 고정 등으로 우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신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전문인력, 청년인력, 일반인력 등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회적 배려 층 고용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ESG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배려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전문인력, 청년인력, 일반인력 등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ESG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14일 관내 반도체 제조 수출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장, 반도체 제조현장 방문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14일 관내 반도체 제조 수출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광주세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증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며 "반도체 제조 수입원자재 신속 통관, 세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사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 "보세공장 확대 지정으로 수입원자재의 세금 납부를 유보해주는 한편, 수입 시설기자재의 우선 통관으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시설투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은행 정규직 신입행원 20명 공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1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

채용 규모는 20여명으로 모집 분야는 중견행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채 방식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NCS, 일반상식, 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중견행원에 대해 지역인재, 일반인재, 디지털·IT, 통계·수학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지역인재 및 디지털·IT 부문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다.

일반인재 부문은 출신학교 지역을 구분하지 않으며, 통계·수학 부문은 관련 학과 전공자 대상으로 지역인재와 일반인재를 구분해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채용설명회 대신 16일부터 유튜브 '광주은행TV' 채널을 통해 신입행원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중진공, 지역 주력산업 육성 앞장

광주혁신주체네트워크 회의…자동차 산업 활성화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홍주, 이하 중진공)는 최근 중진공 호남연수원에서 지역중점육성산업인 자동차 전·후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혁신주체네트워크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중진공, 광주연합기술지주, 광주TP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혁신 기관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동차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원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진공은 전국 32개 지역본·지부를 중심으로 48개 지역 주력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균형뉴딜자금 등 전용자금 마련 ▲지역형 예비 유니콘기업 육성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본부는 지역중점육성분야인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광주형일자리, 규제자유특구인 무인저속특장차 분야 등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중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특화 혁신주체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방위적인 맞춤형 연계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계지원의 주요 내용은 정책자금 융자, 보증, 창업·기술지원, 수출판로 개척, R&D, 투자, 일자리 사업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이어달리기식' 지원이다.

박홍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지역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밀착 지원으로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지역중점육성산업인 자동차 전·후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혁신주체네트워크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